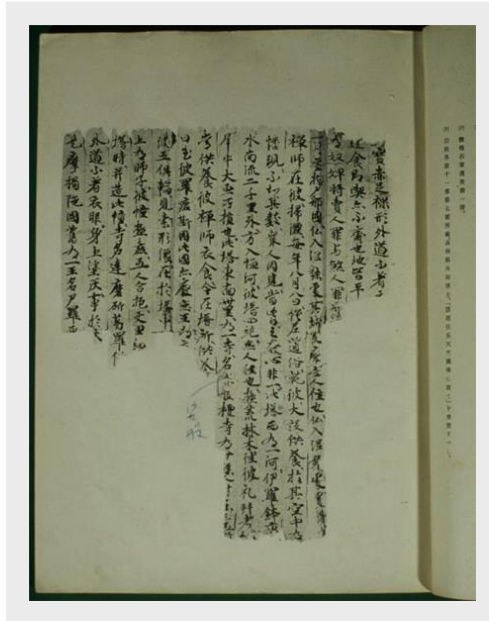


혜초[慧超]

다섯 천축국(天竺國)을 간 밀교(密敎) 고승

704년(성덕왕 3) ~ 787년(원성왕 3)



1 개요

혜초(慧超, ?~?)는 8세기 당(唐)에서 활동한 신라 출신의 승려이다. 그는 730년경 천축국(天竺國), 곧 지금의 인도로 구법(求法) 여행을 떠나 4년 동안 불교의 성지들을 순례하고 돌아온 후 견문록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저술하였다. 또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69~741)와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 등에게 밀교(密敎)를 배우고 수행하며 경전 번역에 힘쓴 중국 밀교의 고승이다.

2 불법(不法)을 구하러 다섯 천축국을 가다

혜초(慧超, 혹은 惠超)는 신라인이었다는 것 외에 알려진 인적 사항이 없다. 혜초가 704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는 연구자들이 그의 스승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69~741)의 행적을 혜초의 것으로 혼동하여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의 활동 시기를 고려하면 대체로 700년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다.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가 매우 흥성하여 많은 승려들이 당으로 유학을 갔는데, 혜초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당으로 불법을 구하기 위한 길, 구법(求法)의 여정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혜초의 구법 여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불법의 근원지 천축(天竺), 곧 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을 찾아갔다.

그는 723년(성덕왕 22) 경 지금의 중국 광둥성(廣東省) 광저우(廣州)에서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三佛齊, Sumatra)를 거쳐 인도 동해안에 상륙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인도 전역을 동서남북과 중앙 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섯 천축[五天竺]’이라고 불렀는데, 혜초도 이 다섯 지역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먼저 인도 동부에서 석가께서 입멸하신 쿠시나가라(拘尸那, kuśinagara)와 다섯 비구를 위해 최초로 설법하셨던 바라나시(鹿野苑, Vārānasī) 등 갠지즈강 유역의 불교 성지를 찾아보았다. 이어 2개월 걸려 이동하여 중인도를 순례했고, 3개월간 남쪽으로 가 남인도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2개월 걸려서 인도로 간 후 계속하여 북인도까지 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파사국(波邪國,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페르시아)과 대식국(大食國,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사라센제국)까지 탐방하였다. 이로써 그의 천축 구법 여정이 일단락되었다. 이제 동쪽으로 발길을 돌려, 갈 때와 달리 중앙아시아를 거치는 육로, 곧 실크로드를 통해 당으로 돌아갔다.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미르 고원을 넘고 마침내 727년(성덕왕 26) 11월 당(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가 있는 쿠차(龜茲)에 도착하였다. 이후 둔황(敦煌)을 거쳐 이듬해 당의 수도 장안(長安)으로 귀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장장 4년에 걸쳐 불교의 근원지인 인도와 그 너머 서역(지금의 중동)을 돌아보고 다시 중앙아시아를 횡단하여 당으로 돌아오는 대장정을 완수하였다.

3 『왕오천축국전』을 짓다

혜초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천축에 구법 여행을 간 것은 아니다. 7세기 말 당(唐) 승려 의정(義淨)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645년~695년 사이 인도로 건너간 승려 61명 중 우리나라 출신 승려가 7명 정도 있었다. 당시는 흔히 삼장법사(三藏法師)로 널리 알려진 당의 고승 현장(玄奘)이 천축을 갔다 온 때로, 천축으로의 구법행이 성행했던 때여서, 우리나라 출신 승려들도 드물지 않게 천축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하지만 혜초는 단순히 천축에 갔다 온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정리하여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라는 저술을 남겼다. [관련사료](#)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세계 유일의 기록으로, 앞선 시기 법현(法顯)의 『불국기(佛國記)』와 현장(玄奘)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비견되는 중요한 구법 견문록이다. 이 책에는 혜초 자신이 방문한 다섯 천축국과 주변, 곧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세, 자연, 의복과 언어, 풍습, 경제와 생활, 종교 상황 등이 기술되어 있어,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책에서 혜초는 특이하게 자신이 지은 오언시(五言詩) 5수를 남겨 놓았는데, 이 시를 통해 긴 여행 중에 느꼈던 감동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왕오천축국전』은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의 승려 혜림(慧琳, 737~820)이 저술한 일종의 불경 용어 사전인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권100에 인용되어 서명과 사용된 어휘 일부만 전할 뿐, 거의 잊혀 졌었다. 하지만 1908년 3월 장경동(藏經洞)으로도 불리는 둔황 막고굴(莫高窟) 제17굴에서 프랑스 학자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가, 후반부만 남아 있기는 했지만, 두루마리 형태의 필사본을 발견하여 실체가 확인되고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현존하는 유일한 『왕오천축국전』으로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세로 약 28.5cm 가로 42cm 정도의 담황갈색 닥종이[楮紙]를 가로로 여러 장 이어 붙여 만들어졌는데, 현재 약 9장을 연결한 358.6cm 가량만이 남아 있다. 내용상으로는 여정의 시작 부분은 결실되어 없고, 인도 동부 순례에서 시작하여 귀환하는 여정 중 오늘날 중국 신장성 위구르족 자치구에 있는 쿠차(龜茲)에 이르러 끝난다.

그런데 이 파리국립박물관 소장본은 혜림의 『일체경음의』에 인용된 『왕오천축국전』이 3권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과 달리 1권의 두루마리이며, 둘 사이에 사용된 어휘가 바뀌는 등 수정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원본이 아니라 요약정리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체경음의』에 인용된 어휘들이 보다 적합하게 수정되는 등 보완 및 추가 기술의 정황이 있어, 완성본을 만들기 이전의 초고본(草稿本)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왕오천축국전』을 인용하여 그 존재를 후세에 전한 혜림의 『일체경음의』는, 중국에서는 일찍이 망실되어 전하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에만 수록되었다가 일본에 전해졌다. 그리고 일본에 전해진 『일체경음의』를 본 펠리오가 자신이 발견한 두루마리가 『왕오천축국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왕오천축국전』의 발견 역시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1,500여 종의 문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일체경음의』의 마지막 100권에 『왕오천축국전』이 인용되어 있어, 사실상 고려대장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밀교(密敎)의 고승 혜초

혜초는 천국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 밀교(密敎) 승려로 활동한다. 밀교는 대중 교화를 중요시하는 대승(大乘) 불교의 한 종파로, 불교 교리의 이론적 탐구 보다 실천적인 수행을 강조하였다. 밀교의 수행자는 진언(眞言, 불교의 주문)을 외우는 수행법을 통해 현재의 육신 자체가 바로 부처가 되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불교 종파 중에서 신비주의적이고 주술적 성격이 강했다. 밀교는 4세기 인도에서 발생하여 7세기에 경전이 성립되고 교리가 체계화되었다.

신라도 일찍부터 밀교의 영향을 받아, 불교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속신앙을 대체하는 역할을 했으며, 삼국통일전쟁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밀교가 이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혜초는 일찍부터 밀교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밀교 승려가 된 것은 천축 순례를 마치고 5년이 지난 때였다.

그는 733년(성덕왕 32) 인도에서 당으로 건너와 중국 밀교 초조(初祖)가 된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69~741)를 스승으로 삼고, 당의 수도 장안에 있는 천복사(薦福寺)에서 ‘대승유가금강오정오지존천비천수천발천불석가만수실리보살비밀보제삼마지법(大乘瑜伽金剛五頂五智尊千臂千手千鉢

千佛釋迦曼殊室利菩薩秘密菩提三摩地)’라는 밀교법을 전수받았다. [관련사료](#) 그는 이후 금강지와 함께 지내면서 밀교를 공부하고 수행하였다. 천축을 다녀 와 범어(梵語,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했던 혜초는, 740년(효성왕 4)에 당 황제의 칙명으로 금강지와 함께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經)』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관련사료](#)

이듬해 금강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번역을 계속 해나가면서 밀교 경전 연구와 수행에 힘썼다. 금강지 밑에서 동문수학한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을 스승으로 삼고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경』의 내용을 다시 묻고 정리하여 번역을 완성하였다. 그는 이 경의 서문을 지어 대의를 서술하였는데, 이것이 이후 이 경에 대한 해제의 모범을 될 정도로 그는 밀교의 교리에 정통했었다. 아울러 같은 해 당 대종(代宗)의 명으로 장안 인근의 옥녀담(玉女潭)에서 기우제를 주관하는 등 밀교 승려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는 신라 출신이었지만 끝까지 신라로 돌아가지 않고 당에서 활동하였다. 780년(혜공왕 16, 선덕왕 1) 밀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우타이산(五臺山, 중국 산시성 신저우시 우타이현 소재)에 입산해 수행을 이어가다가, 그곳에서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혜초는 불공을 이어 중국 밀교를 집대성한 혜과(惠果, 746~805)와 함께 불공 6대 제자로 꼽힐 정도로 중국 밀교를 대표하는 고승이었다.